

2024년도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전주인후초등학교

1. 스포츠맨십, 성폭력 예방법

※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이란 스포츠를 할 때 지켜야 할 정신자세를 말한다.

- ▶ 상대편 존중하기 : ‘상대편 존중하기’는 경기를 할 때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 싫어하는 표현을 안하는 것, 승리 축하를 올바르게 하는 것, 나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우리팀 존중하기 : ‘우리팀 존중하기’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팀 내의 경쟁을 잘 조정하는 것, 팀의 규칙을 잘 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한다.
- ▶ 심판 존중하기 : ‘심판 존중하기’는 심판의 판정을 준수하는 것, 심판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것, 심판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것, 심판에게 공손히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 ▶ 스포츠 존중하기 : ‘스포츠 존중하기’는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 경쟁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 게임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 ▶ 코치/ 선수 존중하기 : ‘코치/ 선수 존중하기’는 지나친 간섭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 게임의 역사와 정신을 올바르게 알고 있을 것, 스포츠맨십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성폭력예방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또는 성적으로 놀려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성폭력 예방법
 - 집에 혼자 있을 때에 누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다른 집을 방문할 때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놀지 않는다.
 - 모르는 사람의 차를 함부로 타지 않는다.
 - 잘 아는 사람이라도 싫은 느낌의 접촉은 “싫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 차를 세우고 길을 묻는 사람에게는 잡아끌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과자나 장난감으로 유인할 때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과자나 장난감으로 유인할 때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 평소에 적당한 운동과 체력 단련으로 자신감을 기른다.
- ▶ 성폭력 위기 시 대응방법
 -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 상대방의 입장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 대소변 등의 급한 용무를 끊임없이 호소한다.
- ▶ 성폭력 발생 후 대처방법
 -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가정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 숨기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받는다.
-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 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
-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가족동행)
- 몸은 씻지 않고, 속옷도 갈아입지 않으며, 가능하면 빨리 산부인과에 간다

2.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

폭력이란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나, 학생선수와 학생이 아닌 사람 간에 이루어진 폭력이나, 학생선수 간에 이루어진 폭력이나에 따라 폭력의 범위와 처리가 다르다.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욕설도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폭행으로 여겨진다.

- 다른 학생 선수(학생)를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
-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것
- 어떤 장소에 강제로 가두어 두는 것
-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속여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 쪽으로 끌어 들이는 것
- 사실이나 거짓을 공연히 퍼뜨려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 때리거나 협박하여 겁먹게 한 후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
- 강제로 시키는 것
- 몇 명이 한명 또는 극소수의 학생 선수(학생)를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것
- 전화나 이메일로 협박하거나 음란한 말 또는 사진 등을 보내서 피해를 주는 것
- 성폭력
-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후배선수 교육이나 기강 잡기, 선수에게 고통을 줄 정도의 심한 기합이나 체벌(구타) 및 협박이나 욕설 등

▣ 폭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

- 늘 다른 선수(학생)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분노를 참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폭력 예방의 한 방법이다.
- 만일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선수(학생)와 부모님께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하며, 선생님과 감독(코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린다.
- 다른 선수(학생)와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부드러운 대화로 풀어야 한다.
- 다른 선수(학생)들을 나의 화풀이나 놀림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 내가 다른 선수(학생)의 거친 말이나 행동을 싫어하듯, 나의 거친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른 선수(학생)도 싫어한다.
- 나 또한 나에게 폭력당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후배 선수 교육이나 기강 잡기 또는 경기와 관련한 격려 등은 훈계나 훈화로 하되, 가급적 칭찬을 많이 한다.
- 다른 선수(학생)에 대한 폭력은 곧 범죄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구속될 수도 있으며, 선수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아무리 훈련이나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일지라도, 폭력은 범죄이다.

▣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 선수(학생)나 지도자(감독)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습관, 예의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부와 운동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다른 선수(학생)나 지도자(감독)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하며, 홍보거나 험담해서는 아니 된다.
- 동료, 선후배, 감독(코치)님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신속히 사과하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하면 해명하는 것이 좋다.
- 부모님, 선생님, 동료나 선후배, 감독(코치)님과 대화를 자주 한다.

- 평소에 지나치게 튀는 말이나 행동 또는 복장은 삼가야 한다.
- 동료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 대화로 도와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코치)님이나 선생님 또는 그 선수(학생)의 부모님께 알려 드린다.
- 폭력사건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나 경찰에 알린다.
- 평소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선수(학생)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선수(학생)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